



중학교 교사 사망 유가족, 지난 5일 고의숙 교육감 면담

진상조사 ‘갈등’… 실마리 찾나

“교육감이 감사위 감사 청구를”… 새로운 대안 등 거론
교육감 “취지는 공감… 법률 근거 살필 것” 입장 전해

약성 민원에 시달렸던 제주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1년이 넘도록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 측과 고의숙 교육감이 진상조사 방안 등을 두고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과 면담했다. 30분간 이어진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측은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의 진상조사를 비롯해 순직 심의 지원, 순직자 예우,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족을 비롯해 교원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전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가 사실상 내부 인원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셀프 조사’였으며 외부 기관과의 재조사를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6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 사유가 교육청의 진상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여전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경운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된 뒤에 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명분을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측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넘게 지났다는 점에서 추가 자료 확보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고려해 유가족 측도 기존에 요구했던 진상조사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고 교육감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교육감 체제로 전환된 만큼 내부 자체 감사를 다시 하거나 교육감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전 진상조사의 문제를 살펴달라는 요구다.

면담에 참석했던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제 막 대화를 시작했고 교육청도 법률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취지에 공감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떤 방식이든 시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교사가 근무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인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중학교 교사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이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여름바다에서 즐기는 낚시체험 6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서 관광객들이 낚시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계속되는 폭염에 수난 구조신고 급증

7월 한달 119신고 126건으로 전년비 20% ↑… 물놀이객 2명 사망

한달 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서 스노클링이나 낚시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 7월 평균기온이 27.4℃로 역대 4위, 폭염일수도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와 수중레저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월 한달 제주119상황실로 들어온 수난사고 관련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1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20%나 증가했다.

또 올해 여름 수난사고로 2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낚시와 수중레저 등을 하다 발생한 인명사고도 6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9시22분쯤 서귀포

시 보목동 보목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50대가 바다에 빠져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14분쯤 제주시 구좌읍 코난해변에서 물놀이하던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처럼 수난사고가 증가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 재발방지를 위해 수상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인파가 몰리는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탄력 운영하고 소방, 자치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 협업 순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 등에 근무중인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을 전·후 1시간씩 추가배치하거나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 참여 자체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치경찰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경찰과 의용소방대와도 협업해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및 마을 숨은 물놀이 장소까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 워터파크 시설, 수중레저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읍면지역 ‘심야 주유소’ 시범 운영

도, 13일까지 참여업체 공모

읍면지역에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심야 주유소’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주유소다. 단 이미 오후 8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곳은 제외된다

운영 시간은 주유소 여건에 따라 오후 8~10시까지와 오후 8~11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야 주유소로 선정되면 오후 8

시 이후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 받는다. 이번 시범 운영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85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달 내 5곳 이상 선정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 사업은 도내 읍면지역에선 심야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 주민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불편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기자

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481건 적발

최근 두 달간 제주도 내 관광지 등에서 400여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481건이 단속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단속사례는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가 245건(50.9%)으로 절반을 넘었고, 면허정지 236건(49.1%) 등이다.

지난달 23일 저녁에는 제주시 합덕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

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또 6월 27일 오후에는 사계해안 인근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해수욕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영석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